

쓰레기봉투 12년 만에 11% 오른다

군산시 내년 1월부터 반영... 인상시 주민부담률 19.4% 예상

군산시는 2006년 1월 개정 후 10년 넘게 유지되어 오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가격을 평균 11%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군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62억원으로 종량제봉투 판매 및 각종 폐기물처리 수수료 등의 수익이 28억원을 감하면 실제 주민부담률은 17.5%이며, 나머지 82.5%는 시

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2019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의 주민부담률을 30%까지 높이도록 권고한 환경부의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난 4월 개최된 군산시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종량제봉투(20L)의 가격을 4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할 바 있으며, 앞으로 개정안

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경우 군산시의 주민부담률은 19.4%로 예상된다.

시에서는 이번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그동안 세대당 월 평균 2천원 지출되던 비용이 내년부터는 230원 정도가 추가되어 2,3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높은 상황에서 가계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 같아 마음

이 무겁지만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자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 에 따른 인상된 종량제봉투 가격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음식물 종량제 납부침의 가격 역시 별도의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5.0 기준 종전 200원에서 250원으로 50원 인상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대는 최근 '제16회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부터 금상까지 5개를 획득한 가운데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군산대, 전국발명대회 큰 상 싹쓸이

대통령·금상 등 5개 획득 탁월한 성적으로 위상 높여

군산대가 발명의 메카로 뜨고 있다. 지도교수의 열정과 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어우러지면서 학생들이 전국 발명대회에서 탁월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

군산대는 최근 '제16회 청소년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부터 금상까지 5개를 받아 "큰 상을 싹쓸이 한다"는 시샘어린 축하를 받았다. 한국대학발명협회가 주최하고, 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후원한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4300여 점의 출품작이 쏟아졌다.

최미영(경영학부 3)씨는 '하천 쓰레기 자동 수거기'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친환경 물레방아로 스크류를 돌려 쓰레기를 제거하고 전력까지 생산하는 제품으로 "완성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락영(세라믹코팅소재디자인학과 4)씨는 'always safe'로 대상을 차지했다. 공시현(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4)씨는 '비세먼지 제거기'로, 최수지(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1) '뿔채뚜껑'으로 각각 금상을 받았다. 베트남 출신의 응엔비에트흥(소프트웨어융합공학부 2)씨는 '응급 처치 의료기계 자판기'로 특별상을 받았다.

/군산=김관근 기자



군산산단 좋은환경 조성 관리시책 추진 '큰 호응'

군산시는 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군산지역자활센터와 산업단지 유지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책들을 추진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동안 산업단지(845만평) 유지관리는 예산부족으로 인해 일반산업단지만 일정기간 제조작업 용역으로 관리하고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공공근로 등의 인력만을 사용했기에 전담인력이 부족하여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지난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인도 제조작업과 청소, 공장 위험시설물 모니터링, 기업지원 행사 지원 등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군산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7km구간에 대하여 도로·인도 주변과 분양용지, 민원발생 지역에 대한 제조작업과 청소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입주기업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기업들의 환경개선과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업단지 유지관리 자활사업 협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야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농업회의소 설립 가시화

시범사업 선정... 2019년 완공시 농정 거버넌스 실현 기대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7년도 농업회의소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농업회의소는 농업인들의 지위향상과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민간주도형 대의기구다.

농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농정에 참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 분야 내 이해관계 조정 및 정책 제안, 지역농업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 농업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훈련 등 업무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는 오는 2019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2017 농업회의소 시범사업

공모'에서 익산시는 지난 2014년부터 민·관이 함께 농업회의소 설립을 준비해 오고, 특히 2017년 1월 미래농정국 신설 후 22개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의지와 익산형 농정 거버넌스 체계인 '익산시 희망농정 위원회'를 민간(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아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이달 안에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2월까지 농업회의소 이해 및 공감대 확산교육, 지역순회 설명회, 농업회의소 정관 및 지원조례(안)작성, 회의소별 특화사업 발굴, 사업계획(안) 수립 및 기타 제반사항 지원 등의 교육과 컨설팅 지원을 받는다.

최봉섭 미래농정과장은 "농업회의소가 설립되면 민간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업계의 공식적인 농정 파트너십이 형성돼 현장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농정 추진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실무 TF팀을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농업회의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업회의소는 2016년 현재 8개 시군(강원 평창, 전북 진안, 전북 고창, 전남 나주, 경북 봉화, 경남 거창, 경남 남해, 충남 예산)농업회의소가 실제 운영되고 있으며 광역 2개소, 시군9개소가 설립과정에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첫 토크콘서트 성황

각계각층 시민 500여명 참석... 진솔한 이야기 나누

정헌율 익산시장(사진)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마주 앉아 진솔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궁금증을 해소하는 '익산토크 별★별이야기'가 열려 화제다.

12일 오후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첫 토크콘서트에는 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익산시 정책에서부터 사소한 이야기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를 시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콘서트는 시민이 궁금한 내용을 자유롭게 질의하고, 정헌율 익산 시장이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2018 전국체전 준비현황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방안 ▲악취문제 해소방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방안 ▲민생경제 활성화 위한 일자리 정책 ▲인구증가



시책 추진현황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했다. 또한 각종 개선제안과 민원사항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쏟아냈다.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이번 토크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시민이 들려주는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해외 출국 전 건강준비 원스톱 해결"

국립군산검역소-군산의료원 국제 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대행서비스 업무협약

국립군산검역소(소장 류강희)는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국제공인예방접종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환절 및 불쾌해 예방접종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최근 전북도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과 "국제공인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대행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 동안 국립군산

검역소에서 실시했던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에서 시행함에 따라 우리 지역민이 해외 출국 전 필요한 각종 예방접종과 의료진 진료 등 건강한 해외활동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원 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오염지역 출국 전 꼭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인 국제공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될 군산의료원은 우리지역 예방접종 민원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할것을 약속 하였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시 28일까지 명장 후보자 접수

익산시는 '2017년 익산시 명장' 후보자를 9월 28일까지 신청 받는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인 익산시는 백제의 혼을 계승하고 지역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명장을 선정하고 있다.

석공예·귀금속·섬유·이미용 4개

분야로 자격요건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9월 8일) 현재 계속해서 7년 이상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45세 이상 관내 산업체 종사자다.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를 선발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